

할아버지 이야기



들어가는말

이 책의 내용들은 아버지께서 째째이 녹음하신 우리 할아버지의 음성 파일을 시각화 한 것이다. 평소에 말씀이 많지 않으신, 하더라도 느릿느릿 하시는 할아버지는 그래도 옛날 얘기를 하시거나 들려주실 말씀이 있으시면 술술술 이야기를 풀어나가신다. 할아버지를 친근한 우리 할아버지인 동시에, 이런 저런 이야기를 가진 한 사람으로서 관찰하고 그 이야기에 귀기울여 볼 수 있는 계기가 된다.

5월달에 샀던가 6월달에 샀던가 1년치를 뒤져봐야 하니까,

하나 노트를 해가지고 생일 뭐 제삿날 같은거 적어놓는 란이 있고,
하나는 내 건강기록부 언제는 뭐 건강검진을 받았다.

언제는 뭐 이빨을 했다 해놓으면, 금니빨 한것이 이것이 몇년도에 했으니까
몇년이나 가겠다 하는데,

고것을 자기 건강검진에 대한걸 딱 적어놓는 란이 있고,
하나는 집에 세탁기를 샀다, 텔레비를 샀다 하는걸, 언제 산 건지
이건 뭐

몇 해 가서도,

이걸 3년이 가도,

5년이 돼도 몰라.

여기 가계부에 적어놨지만 가계부를 뭐 1년치, 몇년 치를 뒤적거려야지,
노트 하나 에다 딱 해놓으면 이제 그거 몇년도에 했다는게 딱 나오고,
그렇게 하고 이거 꼭 해야겠다 하는것은, 가정은 보일러 같은 것은 몇년도에
했으니까 몇 년도에 갈아야겠다 하는거지.

딱 나오는 거지.

그런 장부가 하나 있어가지고 생일날, 제삿날, 그리고 자기가 아파트를
몇년도에 샀다. 그런거.

지금 저 느 아버지 물어보면 알지만, 몇 년도에 이사 왔는지,
 몇 년도에서 왔는지 몰라.
 이제 그거 딱 들어보면 딱 나오게시리 그런 습관을 길러야된다고.

나는 뭐 몇년 치 다 여기 보면 딱 나오지.

여기 보면 2006년,
 2008년,
 2010년..

그거 딱 나오게시리 이렇게.
 몇날 몇일에 가족과 생일. 뭐 그런것 적어놓고.
 우리 형제들 뭐 적어놓고. 이걸 제삿날.

이것은 큰방에 크기를 딱 적어놓고.

이게 세를 놓으려면 방이 크기가 얼마나 돼요?

하면 복덕방에다 이걸 갖다 읽어주면 딱인겨.

이 방 이 층에 세를 놓는데, 큰 방은 얼마고 작은 방은
 얼마고 뭐는 얼마고 물어보면 답변할 사람 하나도 없어.
 이제 이거 같다가 하는겨.

요기 이 사람들 몇 날 몇 일에 와서 몇일날 가고.

재산 목록이라는게 이게 뭐 토지 이런거 뭐 아빠.
 뭐 지홍이, 니들 지찬이 뭐 이런거 여기다 딱 적어 놔어.
 여기 이걸 10 몇년도에 집을 허물어서 뭐 먼저번꺼 하는게.

이게 이 노트 하나 가지고 보면은 다 나온다고.
 그럼 이런 습관을 들여서, 잘 하던 못하던 이런 식으로 하는겨.

가계부도 그걸 뭐, 몇년도를 해서 뭐 그날 그날 쓰는 것도 정리해서,
 요고 합해가지고 일 년에 얼마나 나오겠다 하듯이,
 계획된 생활을 해서

윤지 까까 사준거 여기 다 있어.

내가 버는 것이 얼마데 어떻게 맞춰 나가야지,

주눅 주눅 써 놓으면 나중에 가서는,

댁은 모르는데 얼마를 했으니까 얼마를 해야겠다.

딱 채워가지고 100원을 벌었으면 10원은 저축을 해야겠다.
 계획을 세워고 그걸 맞춰 나가야지, 쓰면서 하면 이건 안되는 거.

나는 인생을 좀 딱딱하게 살았어.

그러, 그런거야. 밥먹어 이제.

명언

사업할 땐 못했어. 바빠가지고. 사업할 때 장부는 다 없애버렸지.

그걸 왜 없애?

뭐, 왜 없애? 그게 뭐 없어질라고 없어지나, 그냥 어디 두면 뭐,
휘 저어가지고 없어지고. 요 요거 이것도 중요한겨.

이것도 외워야 되는거여.

서울 시내 노선 버스가 여기 도봉구에는 100에 1자가 들어간게 도봉구역.

은평구에는 여기 맨 첫 머리에 7자가 들어가.

여기 6번.

그만 와요. 네?네?

그니까 할아버지가 뭐 하신거가, 이런걸

거울은 웃지 않는다.

오려서 같이 사진 찍어 놓은거구.

이게 저작년에 느들한테 썼던 글이여 이게.

그래서 여기다 편지 해가지고 돈도 넣어서 썼지.

하하 그래서 내가 이거 이게 썼던겨.

항상 상대를 감사한 마음으로 대하라.

사람은 주면 오게 되는겨.

노력 끝에 결실이 온다. 과욕은 버리고 열심히 살아보자.

이렇게 써서, 그래.

엄마랑 작은엄마들 이렇게 써서 주고 그러는겨 이게.
이제 밥 먹어.

하네 2는 다 리



젊었을 때

돈이 툭 떨어져가지고,
나한테 돈을 꾸 달라 그러더라고.

그 사람 보다 나는 처음 들어가서 그냥 절반 일당도 못받고 다녔는
데, 밥 짜지 않냐?
그놈들은 돈을 다 쓰고서루 나한테 돈을 꿔달라 그랴. 맛있어 엄마

나는 비상금은 툭 안떨어지니까. 그냥.
이모네서 가져왔어
요 셋주머니에다가 비상금만 딱 너놓구서루 음

3년 벌어가지고 조그만한 학교방 하나 사가지고 할머니랑 결혼해서.

할머니는 셋방은 몰라 그냥. 할머니는 호강했지.
학교방 살아가지고 그냥. 셋방 살이 안해보고 다 이렇게..
아니 집은 좋은데 안살았어도, 남의집 안살았어. 시집 와서 그냥.
눈치 안 보고 살았다.

II

흙벽돌로 짚어서 지은 집을 하나 조그만 한 걸 방 두 칸 짜리를 샀어.
이런걸 한달에 한번놀아.

토요일, 일요일도 없고, 옛날에는 한달에 한 번 놀았어.
회사에서 요즘 토요일 일요일 놀잖아. 옛날에는 한달에 한 번 쉬었다고.

아침에 일찍 가서 저녁에 들어오는데,

한 번 놀으면 그날 노는 날도, 썰멘도 사기를 하나,



그걸 현장에서 한 대빱씩 얻어다가

그걸 갖다 모래랑 갖다



노는 날이면 그걸 흙벽돌에다 거기다 썰멘 바르는 걸

이거 뭐 바르는 거야. 그냥 뭐 몇 개, 탄집보다 더 잘 할라고 그냥.

묵 좀 조금 잘라올까?

아 됐어 먹고 밥먹고

딴 집은 흙벽돌인데 나는 길에다 썰멘을 발라가지고.

발르면 이제 이게 겨울에 이제 이놈의 흙벽돌이 얼었다 녹으니까

길에 받은 썰멘이 벌러덩, 벌러덩 다 나빠지네. 거기다 놓으면 목이 간장 안해도 되겠다.

국물먹어

다 나빠지면 그 또 그 그냥 그거 하는겨.

돈을 하나 안들이고 이런걸 사네 이런데 돌 줏어다가 이런데 축대 쌓고.

노는 날 한번 놀아보지도 못했어. 인생을 그렇게 억울하게 살았다고.

아이구 먼저 들어온 사람들 기술자들 많은데 나는 늦게 들어가고 했는데도

나를 그 회사가 커져가지고 나를 공로 주를 주면서 나가지 못하게 꼭 묶었어.

그래도 그 회사가 망하면서 그 주를 하나도 못받았지만은.

못자리

엄마 아빠 두분 다 계시니까 그래도 저기 뭐야

그 못자리는 어떻게 하면 좋은지 한번 오늘 상태로 얘기해봐 한번. .어떻게.

못자리는 무슨 못자리여

아니 할아버지 할머니 지금 할머니까지 해서 지금

따로 따로 있으니까 그걸 합치듯이 해야지

못자리는 나는 그렇게 생각하

그것은 이젠 뭐 사회 유행이란게 이제 이런게 있잖아

뭐 옛날엔 모의를 쓰다가 요즘에 납골당으로 갔다가

뭐 지금은 수목장으로 하는 그 뭐 시대 흐름이 있는데

시대 흐름을 봐가지고...

실은 난 죽어지면

육신은 난 끝나는겨.

나는 정신.

정신이라 하면은 예수교라 하든 십자가를 놓고 예수라 하지만은
십자가에 예수가 뭐 있어. 마음,

자기의 마음이 십자가가 예수라고 마음을 믿고 자기 정신 닮는겨.

뭐 판거 없어.

석가모니도 저 부처 하나 해놓구서루 그게 석가라고

기도 해봐야 내 마음이 저게 석가라고 믿었기 때문에 절을 하고 뭐
기도를 하는 거지 마음 닮는겨여.

그리고 이제 저 제사 지낼때 지방 써놓고 저 우리 할아버지라고 어떤

절 꾸벅꾸벅 하고 어떤 그게 글자 몇 자 써 놓고 우리 할아버지가 될 수 있나.
 자기 마음이 우리 할아버지라고 믿고,
 할아버지, 할아버지 고마움을 느끼고, 자기 정신 닮는겨.
 판거 없어.

판거 없어.

지금 화장을 해서 납골당 납골함 저기 저 향아리에다 났는데,
 향아리 속에서 넣어야 그 안에서 그게 벌레가 생긴다고.
 그니까 생길 수가 있는 거지 뭐.
 이런데서 쌀도 쌀벌레가 생기는 것 마냥 버리는 거니까.
 산소, 공기지, 산소가 공기, 흙, 물이 합친 것이 육신이라고.
 나무도 그렇고 뭐 생물이란것은 다 세 가지가 묶여있는게 생명이야.
 흙으로 가고,

공기로 가고,

물로 가고..

흩어지면



아무것도 없는겨.



그니까 제 위치를, 3대 요소 제 위치를 찾아가는거라고.
 식물도 저기 뭐여 썩어지면 흙으로 가고. 말라가지고 물로 가고, 공기로 가고.



나무도 숨을 쉰다고. 그니까 이 항아리가 이제 내 생각에는
 납골당에다 가던,
 산으로 묻던,
 기형은 안할 꺼고 이제 화장을 할꺼란 말이야.



흙이 지금 이런데 흙은 시커멓게 썩었지만은 원흙이 있어.
 원흙은 빨커럼하니 황토 흙이라고.

그니까 이런 썩은 물이 안 들어간
 옛날 파면 그런 흙이 나오고 그런 땅을 어디다 하나를 모아놓던지, 어디다 파
 면 있다는 것을 미리 해놨다가, 납골함 당에다가 밑이 절반정도 흙을 넣고,
 고 담에 태운 가루를 갖다 넣고,
 그 위에다가 흙을 다독다독 해서



이렇게 하면
 거기서 인제 흙하고 인제 가루하고 범벅이 되고 조화가 돼서 인제 흙이 되버리
 고 마는 거라고.
 그니까 벌레 생길 일이 없다구.

나 혼자 생각인데 아제, 연구한 것들이니까.



그렇게 해가지고서루,

그때 상황 봐 가지고서루,

시대 흐름이 납골당이면 납골당으로 가고,

그렇지 않으면 땅에다 그냥 묻어버리든지, 난 그렇게 생각해.

납골함 향아리에다

흙을 꼭 넣어야돼

향아리던 뭐던

좋은 것 같으네~
알았어~

돈

그러다가 인제, 돈 조금 벌어가지고 신도림에 그 스라부 건물 하나 지었잖아.
거기다. 그 개천가에다 하나 사가지고.

그게 처음에는 그게 인제 우유 젓짜는 소를 독방에 놔 기러터대여. 거기.
그 똥내가 나고 그러던 텐데, 거기서 똥 사가지고서루,
사가지고 들어가가지고 그냥.

그게 언제여.
몇년도야?

한 그니까 몇년도여 그게 녀들 어릴때지.

뭘 지금으로 같으면 뭘, 한 4-50년 됐던 거지. 응. 122번?

그렇게 될 때만 해도 거기가 뭘, 아주 후미지고 판자집 뭘 전부 다 독방에도 쫓
가고 한 판자집 썼어.

버스라고 해도 이제 거기서 해지고도 일하고서도 거기서 222번인가
상도동으로 오는게 있었어.

그러면 한시간만에 한시간에 한번이나 다니는걸 거기서 타고 그냥.

그걸 붙들고 그냥.그래가지고서루.



그때 저 낳았어요?

응?

신도림에 이사갈때, 저 낳았었어요?

너? 음 너는 낳았지. 뭐여.

그 저 너두 상도동에서 상도동 살다 절루 가가지고 서루독립한거니까, 아니,
상도동에서 독립한게 아니,

아니, 상도동에서 독립했나?

너 할튼 국민학교

어..

내 서른 다섯에 독립을 했으니까, 서른 다섯에 독립을 했으니까,
지금 몇 년 됐어?

서른 다섯,

마흔 다섯,

쉰 다섯,

예순 다섯,

저 아직 안낳았.. 일흔 다섯..

음.. 사십 사십 칠년 됐는가배.

아직, 아직 아직 안낳았어ㅋㅋㅋㅋ

47년 전에 공장을, 직공사를 하다가..

너 낳기 전에 내가 독립했구나. 그러 그러.

그러게 일찍 독립을 한 셈이지.

그래가지고서루 그거 그거나마 아무것도 배운 것 없이 끌고 나가느라고,



배운 것이 인제 경험, 뭐 여러가지, 사회 물질이라던가,

지금 뭐 실은 저 지금,

사회 기본 상식은 아마 대학교 나온 사람보다 내가 나았을 거여.

그렇게,

그렇게 와가지고서루, 하는데,

그래 인제, 거기 와서 그때

800원인가

800 0원인가 할튼 받고 있는데,

8000원인가 얼마가...

그때 근데 15000원 준다고 그 거진 뭐 배나 되게 준다고 오라 그러더라구.

그래서 얼싸 좋다고 그냥 와버렸지. 헤헤.

그 그래와가지고서루 이제 뭐야 거기서도 참 죽겠다고...

돈에 얽매이지 않고 일에 얽매여가지고,

샷다 레일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데,

흙통을 세워서 벽돌을 쌓아 올라가는데 그걸 지켜섰다가 중간에다 이제 감는 거지.

그니깐 저 직장생활을 하던지, 장사를 하던지 간에

실은 돈에 얽매이지 말고

현실에

충실하면은 앞길이 저절로 열려.

근데, 돈에 얽매여가지고 앞길이 막히는 거야.

그렇게 하다 보면 다 눈이 있어. 주위에서 보는 눈들이.

그러니 아무리 친구 지간에도,

사탕 사주고 빵 사주고 하지만,

그때는 그냥 친구라고 해해 하지만은.

뒷구녕으로 저 친척이, 느들 동료들 누구 소개해달라고 하면,

빵 사주고 뭐, 마음 복 빼뚜루 쓰는 사람 소개 안해줘.

빵 하나도 안 사주고 지속쟁이지만,

참 옳은 길을 가고 성실한 사람을 소개해주지,

빵 얻어먹었다고 그 사람 소개해 주는게 아니여.

그니까 그냥 본심을 가지고 어떻게 잘 하게 되면 앞길이

다

열리는거야.

알겠습니다 아버지.



